

논문접수일 : 2014.04.04    심사일 : 2014.04.13    게재확정일 : 2014.04.26

## 패션스타일리스트의 교과과정 및 실무사례 분석

Analysis of the Curriculum and Practical Business Case of Fashion Stylists

주저자 : 황경혜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Hwang kyoung-hye**

Dept.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현명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강사

**Hyun myung-kwan**

Dept. Clothing & Textiles, Jeju National university

\* 본 논문은 2014년도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 1. 서론

## 2. 패션스타일리스트 실무사례 분석

- 2.1. 조사기간
- 2.2. 조사대상
- 2.3. 조사방법
- 2.4. 분석결과

## 3. 국내 패션스타일리스트 교과과정에 대한 전문가 설문조사

- 3.1. 심층면접결과 : 김성일, 남성(40대)
- 3.2. 심층면접결과 : 최혜련, 여성(40대)
- 3.3. 심층면접결과 : 김진욱, 남성(40대)
- 3.4. 심층면접결과 : 이경형, 남성(50대)
- 3.5. 심층면접결과 : 지경하, 여성(40대)

## 4.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 논문요약

패션스타일리스트 분야는 크게 업종 및 업태별로 분류할 수 있다. 업종별로는 광고·홍보분야, 패션잡지·사진분야, 어패럴·유통분야, 무대·영화분야, 패션쇼·이벤트분야, 방송·연예분야로 나뉠 수 있으며, 업태별로는 패션, 뷰티(헤어, 메이크업 등), 공간(디스플레이디자인, 무대연출 등) 중심의 영역에서 전문적 기능과 역할이 수행되고 있는 패션관련 전문직이다.

국내 패션산업의 방향이 생산, 유통 중심에서 스타일 중심의 토털 패션 이미지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전환됨에 따라 패션스타일리스트 분야의 현장실무환경 구축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성 높은 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오랜 경험과 활동적인 패션스타일리스트 전문가 50명(국내 스타일리스트 업종 종사자 약 10%)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와 심층면접(5명)을 통해 국내에서의 패션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인식 및 패션스타일리스트의 활동영역과 역할, 전문적인 교육 여부에 대한 내용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무는 시대적 트렌드에 민감하고 빠르게 변화되는 특성이 강하므로, 교육적 시스템의 근본적 체계를 바탕으로 업무적 스킬, 문화, 역사적·미학적 전문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의 스타일리스트들의 인프라 구축 및 현장실무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패션스타일리스트, 현장실무환경, 교과과정

### Abstract

The position of fashion stylist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business types and conditions. The types of business can be divided into fields of: advertising, public relations, photography, fashion magazines, apparel and distribution, stage and film industries, fashion shows and events, broadcasting, and entertainment. Business conditions include: fashion, beauty (hair, makeup, etc.), and space (set design, stage direction, etc.), mainly in the areas of fashion and related professional roles.

Korea is a rapidly developing industrial society undergoing changes in working environments, bu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fashion stylists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highly-specialized and systematic courses, hands-on training, and field work experiences of fashion students in the industrial production and distribution centers are urgently needed.

Therefore, results were derived from assessing the primary role of the fashion stylist with x years of experience in the field with respect to the active professional fashion stylist, and the sample included 50 stylists (10% domestic stylist sector workers). The sample population was given target questionnaires and a smaller sample was given in-depth interviews (n = 5) regarding the country in which they were professionals, the recognition of their roles and activities, and how their education was obtained. Secondly, the survey also assessed the courses offered by the Department of Education for Fashion Stylists in both the two-year and four-year programs. Participants also classified the status of the different courses. Established fashion stylists in Korea and abroad related subjects into the curriculum for 2- to 3-year programs (9 schools) or 4-year programs (3 schools). The characterization points were then derived and analyzed confidenti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emporary trends and practices in fashion are changing rapidly, and education and fundamental work skills of fashion stylists can be improved with an understanding of culture, history, and aesthetic aspects of fashion. It is expected that these various fields will improve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fashion stylists.

### Keyword

Fashion Stylist, Working Environments, Curriculum

## 1. 서론

21세기는 현대인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자기표현을 위한 다양화 현상들이 국내의 산업의 다각화 현상으로 이어져 패션분야에 새로운 환경을 형성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현대인의 개성적인 미를 추구하기 위한 패션 스타일링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될 뿐만 아니라 이미 생활 깊숙이 자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패션이 자기표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면서 개인 생활을 나타내는 상징이고, 더 나아가 패션이 한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문화의 표출이므로 현대인의 사회적 상호관계의 징표가 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인은 자신이 남과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길 원하기 때문에 패션을 이용한 이미지 연출을 의도적인 행동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만큼 자신의 개성추구를 위해 패션관련 상품을 조합하는 패션스타일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장애란 외 2인, 2000; 이재정 외 1인, 2001; 원용진, 2010; 신효정 외 1인, 2000). 즉, 패션과 패션을 바탕으로 행해지는 패션스타일링과의 관계는 상호 교류적 역할을 하며, 두 분야 간의 상호보완적 교류를 통해 시너지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 그 결과 다각적인 패션산업의 발전은 물론 패션스타일에 대한 관심 증가는 패션스타일링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면서 전문적인 스타일리스트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인 패션스타일링의 필요성이 가속화됨에 따라 패션스타일리스트의 활약이 앞으로 가시화 될 전망이다(김수진, 2010; 김아진, 2004; 김혜영, 2000; 김희진, 2004; 이미량 외 1인, 2004; 조현정, 2003; 최민정, 2006; 한정원,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션스타일리스트 양성을 목적으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비효율적인 교과과정을 재정비하고자 한다. 현장요구에 적용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설치함으로써 패션스타일리스트 교육의 선진화는 물론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에서의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과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교과과정과의 실질적인 연관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의 설문지 및 심층면접을 통해 교육방법, 역할확대와 인식,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발급 등의 관련요인들 상호간의 관련성을 현상학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 2. 패션스타일리스트 실무사례 분석

패션스타일리스트 실무사례 분석을 위해 작성된

설문지를 통해 교과과정에서 실무경험 교과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패션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실태 및 현장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설문대상자의 활동영역으로는 광고·홍보분야, 패션잡지·사진분야, 어패럴·유통분야, 무대·영화분야, 패션쇼·이벤트분야, 방송·연예분야(김성권, 1997; 김수진, 2010; 조인실, 2001; 최양목, 2011)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 스타일리스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특히 인터뷰 대상자는 미디어 분야인 방송·연예분야에 관련된 시대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대중매체를 통한 연예인의 유행스타일 확산이 빠르고 광범위해지는 것이 현실이며, 대중들에게 미치는 전파속도와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 2.1. 조사기간

설문조사기간은 2013년 6월15일부터 2013년 10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50부를 배포·수거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인터뷰는 2013년 11월4일부터 5일까지 관련 전문분야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5명의 패션스타일리스트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 2.2. 조사대상

설문은 현재 국내 서울을 중심으로 전문 활동영역에 활동 중인 패션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성별, 연령, 경력, 전공 관련 여부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심층면접은 10년 이상 패션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3 조사방법

설문지 내용은 인구통계학적 변인과 각 분야별 교과목의 중요도 평가 문항의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설문내용은 전문가별 및 영역별 분석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 활동영역 및 역할, 패션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인식,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 확대방안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국내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태 분석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문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경력 내용과 활동형태, 활동영역, 월수입, 대학에서의 전공여부,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 등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교과목의 중요도 평가 부문에는 응답자가 응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16개 분야를 미리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16개 분야는 국내대학 패션스타

성별	
연령	
학력	
경력	
활동영역	
활동형태	
월수입	
대학전공	
현장업무 수행 문제점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문 분석결과 도표

<단위:%>

일리스트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2년제 대학교(대덕대학교, 동주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선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혜전대학교), 3년제 대학교(연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4년제 대학교(경주대학교, 동양대학교, 호원대학교)의 기존

교과목과 전문 활동영역을 고려하여 구성하였으며, 분류내용은 패션디자인, 복식사, 봉제패턴, 색채학, 패션정보, 패션마케팅, 헤어·메이크업, 컴퓨터 활용, 무대·영화, 패션잡지·출판물, 방송연예, 사진영상, 외국어분야이다. 여기에 기타 응답자의 조언이나 개선

점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자료는 빈도, 평균(%)으로 분석하여 해석하였다.

## 2.4. 분석결과

### ①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문 분석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부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고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스타일리스트의 남녀 성별 비율은 50명중 남성 8명, 여성42명의 16 : 84의 비율로, 대부분이 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포도는 20대가 36%(18명), 30대 46%(23명), 40대 이상이 18%(9명)로 구성되었다.

학력으로는 고졸 10%(5명), 전문대졸 40%(20명), 대졸 32%(16), 대학원 이상이 18%(9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경력 면에서 10년 이상이 6%(3명), 5~10년 정도가 16%(8명), 3~5년은 46%(23명), 1~3년 정도는 18%(9명), 1년 미만은 14%(7명)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스타일리스트가 6%의 낮은 비율로 나타난 것은 국내에서 스타일리스트라는 전문직이 생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입증한 결과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중 32%가 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초보이며, 중견 스타일리스트로 평가 받는 3~5년과 5~10년 미만의 경력자는 각각 46%와 16%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급 경력자는 6%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내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직종이 아직까진 전문직으로서의 인정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활동 영역을 분석한 결과, 50명중 가장 많은 62%(31명)가 방송·연예 분야에 종사하는 분포도로 가장 높았고, 패션잡지·사진분야는 16%(8명), 광고·홍보 분야는 8%(4명), 어패럴·유통분야는 6%(3명), 무대·영화분야는 6%(3명), 패션쇼·이벤트분야는 2%(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1, 2, 3위 순위인 방송·연예분야, 패션잡지·출판분야, 광고·홍보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86%로, 이는 현재 국내 스타일리스트들의 능력과 역할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며 동시에 활동의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분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스타일리스트가 방송·연예분야에 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는 것은 방송·연예분야가 K-POP과 한류 문화의 영향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스타일리스트의 다른 분야의 발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앞으로의 패션스타일리스트의 다양한 활동영역으로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활동형태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중 50%(25명)는 프리랜서라고 응답했으며, 광고·연예기획소속이 18%(9

명), 스타일리스트 전문 업체소속이 18%(9명), 어패럴 소속 14%(7명)로 나타났으며, 이벤트 대행사 소속은 한명도 없었다. 활동형태에서 프리랜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스타일리스트의 활동 형태 중 방송·연예분야의 형태가 62%로 나타난 것과 유기적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방송과 연예인의 특징이 개인적인 친밀도, 연예인의 개인적인 의뢰 등 조직적 관계가 아닌 커뮤니케이션적인 방법으로 의뢰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체계적인 관리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스타일리스트들의 수입과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게 된다. 그 결과, 아직도 스타일리스트의 처우와 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체계적인 전문인으로 발전하기에도 한계가 있으므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월수입을 분석한 결과, 경력과 활동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00만원 이하가 12%(6명), 200만원 이하가 52%(26명), 300만 원 이하 10%(10명), 300만원 이상이 16%(8명)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대학전공을 살펴본 결과, 국내에 패션스타일리스트 학과가 10여 년 전부터 개설되기 시작하였지만 지역별로 대학마다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활동 중인 스타일리스트들의 전공을 묻는 항목에서는 66%(33명)가 의상관련전공자들이며, 10%(5명)가 패션스타일학과 관련 전공자들이었다. 미술과 디자인관련 전공자는 14%(7명), 그 밖의 기타전공자들은 10%(5명)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스타일리스트의 업무를 수행할 때 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을 묻는 문항에는 현장실무 업무관련분야가 48%(24명), 커뮤니케이션적인 대인관계는 36%(18명), 기타응답률이 6%(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작업현장에서의 어려운 점은 현장 실무와 관련된 부문이 48%(24명)로 높게 나왔는데, 이는 교과목 설치의 필요성과 설문내용에서의 현장실습·실무분야의 필요하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대인관계 관련분야가 36%(18명)로, 이 또한 현장에서 많은 대인과의 커뮤니티가 상당히 어려운 직종임을 입증한 결과이다. 즉, 패션스타일리스트는 사람과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업무와 관련한 대인관계가 어려운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부재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현장에서의 에티켓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오는 문제점들이 더욱 많다고 한다. 업무적인

측정치 분야	매우필요⑤	필요하다④	보통이다③	필요하지않다②	전혀필요하지않다 ①	N	평균
패션디자인	32(64)	16(32)	2(4)	0(0.0)	0(0.0)	50	46.0
복식·문화사	19(38)	25(50)	6(12)	0(0.0)	0(0.0)	50	42.6
의복 구성	17(34)	22(44)	8(16)	3(6)	0(0.0)	50	40.6
색채학	27(54)	18(36)	5(10)	0(0.0)	0(0.0)	50	44.4
텍스타일(소재)	19(38)	24(48)	5(10)	2(4)	0(0.0)	50	42.0
패션마케팅	17(34)	25(50)	6(12)	2(4)	0(0.0)	50	41.4
패션 뷰티	20(40)	25(50)	4(8)	1(2)	0(0.0)	50	42.8
컴퓨터·그래픽	9(18)	16(32)	19(38)	5(10)	1(2)	50	35.4
현장 실습 실무	32(64)	14(25)	4(8)	0(0.0)	0(0.0)	50	45.6
광고·홍보	16(32)	23(46)	10(20)	1(2)	0(0.0)	50	40.8
패션쇼·이벤트	20(40)	23(46)	7(14)	0(0.0)	0(0.0)	50	42.6
어패럴·유통	18(36)	28(56)	3(6)	1(2)	0(0.0)	50	42.6
무대·영화	27(54)	20(40)	3(6)	0(0.0)	0(0.0)	50	44.8
패션잡지·사진	24(48)	23(46)	3(6)	0(0.0)	0(0.0)	50	44.2
방송·연예	39(78)	9(18)	2(4)	0(0.0)	0(0.0)	50	47.4
외국어	21(42)	27(54)	2(4)	0(0.0)	0(0.0)	50	43.8

[표 2] 현직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의 분야별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단위:%>

방법과 시스템의 활용은 오랜 시간 현장에서의 경험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대인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스타일리스트 본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인간관계, 에티켓 관련 교과목을 채택하여 현장에서 오는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교육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기타 16%(8명)의 결과를 해석해보면, 그 동안의 교육이 현장실무지향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학교 내의 이론 중심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의 오랜 기다림을 통한 체력적인 어려움, 컨셉을 정한 후 아이템을 준비하는 과정, 연예인의 인지도에 따라 협찬물이 바뀌거나 달라지는 현상, 사람들

의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다양한 어려움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②각 분야별 교과목의 중요도 평가 부문 분석결과 현재 활동 중인 50명의 패션스타일리스트를 대상으로 현장에서의 실무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교과목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패션스타일리스트 관련학과에 설치되어있는 교과목분야와 실무 활동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교과목분야 등 16개 항목의 응답 측정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인 '매우필요하다, 필요하다, 보통이다,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로 응답 범주를 작성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실무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교과목 분야가 무엇인지를 파악한 결과, 방송·연예 분야가 47.4%로 비교적 높게 나왔으며, 패션 디자인분야가 46.0%, 현장실습·실무분야가 45.6%, 무대·영화분야가 44.8%, 색채학분야가 44.4%, 패션 잡지·사진분야가 44.2%, 외국어분야가 43.8%, 패션 뷰티분야가 42.8%, 복식·문화사분야, 어패럴·유통분야, 패션쇼·이벤트분야가 42.6%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텍스타일(소재)분야가 42.0% 이상으로 필요성의 인식정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패션마케팅 분야는 41.4%, 광고홍보분야는 40.8%, 의복구성은 40.6%로 나타난 반면, 가장 적은 비율로 나타난 분야는 컴퓨터 그래픽분야로 35.4%로 인식되고 있다는 결론이다. 활동영역에 따라 교과목에 대한 필요성 인식 정도에는 다소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방송·연예, 무대·영화, 패션잡지·사진, 패션쇼·이벤트, 어패럴·유통, 광고·홍보분야 순으로 나타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문가들의 활동형태 중 62%가 방송·연예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볼 사항이라고 사려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사항은 각 대학에서 광고·홍보분야의 교과목이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전문패션스타일리스트들은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선스타일리스트학과에서 외국어 관련분야의 교과목은 소수의 대학만이 설치되어 교육하고 있다. 특히 방송·연예분야의 스타일리스트들은 K-Pop의 열풍과 드라마 시장의 저변확대로 인해 연예인들의 해외공연과 장기체류가 불가피함에 따라 더욱 더 외국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상당수 전문가들의 제언과 조언에서 인문학분야의 교과목이 매우 필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대학에서 관련 교과목이 채택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활동 중인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태 및 현장에서의 실무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분야별 필요한 교과목분야를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라는 직종이 전문화되기 시작한 것은 20여 년 전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류 열풍으로 인해 방송·연예관련 스타일리스트가 많이 활동하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둘째, 패션스타일리스트의 활동 영역 중 방송·연예분야, 패션잡지·출판물분야, 그리고 광고·홍보 관련분야 순으로 가장 많은 일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부분 프리랜서나 스타일리스트 전문 업체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경우 영역의 구분 없이 다양한 영역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구분 성명	성별 (연령)	패션스타일리스트 역량과 교육과정	활동영역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 발급
김성일	남성 (40대)	· 이론 중심적 · 창의적 표현활동 위한 인문학 교과목 필요	· 패션 디렉터 개념의 부재 · 현장실무를 통한 전문가적 능력 배양	· 제도적 장치 필요 · 자격증 발급 불필요
최혜련	여성 (40대)	· 현장실무 능력 저조 ·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 교육	· 연예·방송분야로의 편중 ·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시스템 구축	· 제도적 장치 필요 · 자격증 발급 불필요
김진욱	남성 (40대)	· 전문지식 부족 · 인문학관련 필수 교과목 설치 필요	· 연예·방송분야로의 편중 · 사회·정치·경제 등의 다양한 활동영역으로의 확대	· 제도적 장치 필요 · 자격증 발급 불필요
이경형	남성 (50대)	· 전공교수 부재 · 실무와 연계한 교과목 설치 필요	· 연예·방송분야로의 편중 · 사회·정치·경제·문화산업 등의 다양한 활동영역으로의 확대	· 제도적 장치 필요 · 자격증 발급 불필요
지경하	여성 (50대)	· 산학 연계의 기회 부족 · 현장실습 교과목 의무 설치	·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활동영역의 한계 · 다양한 경험을 통한 활동영역 확대	· 제도적 장치 필요 · 자격증 발급 불필요

[표 3] 국내 패션스타일리스트 심층면접 결과 도표  
이와 더불어 실무현장의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은 외국어의 필요성을 대단히 지적하고 있지만, 기존의 패

셋째, 현직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은 대다수가 대학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관련학과나 의상관련, 미술·디

자인 관련전공이지만, 현장실무 경험 미미로 인한 인  
간관계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넷째, 현직 패션스타일리스트들은 완성도 높은 업  
무수행을 위해 교과 과정 중 현장 실습·실무분야,  
색채학, 외국어 분야가 현장에서의 업무에 매우 필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다섯째, 방송·연예분야를 비롯해 활동영역의 특성  
을 지니는 패션디자인분야, 현장실습·실무분야, 무  
대·영화분야, 색채학분야, 패션잡지·사진분야, 외국  
어분야, 패션뷰티분야, 복식·문화사분야, 어패럴·유  
통분야, 패션쇼·이벤트분야, 텍스타일(소재)분야가  
중요과목으로 선택되어졌다.

여섯째, 패션마케팅분야, 광고홍보분야, 의복구성분  
야 컴퓨터 그래픽분야는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응답  
하였다.

### 3. 국내 패션스타일리스트의 교과과정에 대한 전문 가 설문조사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확대 방안과 관련한 실무  
사례분석을 위해 현장에서 10년 이상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들은 현재 영화, 드라마, 쇼프로, 패션쇼, 홈쇼핑, 광  
고, 잡지, 유통 VMD, 패션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  
하는 패션스타일리스트 5명(김성일, 최혜련, 김진욱,  
이경형, 지경하)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 설정한 교육과정 및 교수법, 활동  
영역 및 역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인식, 패션스타일  
리스트의 역할 확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3.1. 심층면접 결과 : 김성일, 남성(40대)

다수의 연예인들과 아이돌 스타들의 스타일리스트  
와 잡지화보, 드라마작업, 영화작업, 영화포스터, CF,  
카달로그, 패션브랜드와 스타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  
해 스타마케팅을 확립하는데 기여한 전문가이며 다양  
하고 광범위하게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김성일의 확장영역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해결책을 제시하면, 패션디자  
인 관련학과와의 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으며 대학에서의 교육은 현장실무 교육이 미비한  
이론 중심적이어서 현장 업무의 이해도와 능력이 떨  
어진다. 또한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소질계발을 위해서

는 인문학 분야인 철학 교육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철학이 예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철학적 논리를  
잘 이해하면 창의적인 활동을 위해 상상력을 표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교과목이다.

②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확대에 대해서는 외국  
은 스타일리스트가 디렉터의 개념, 즉 패션디렉터, 비  
주얼 디렉터의 개념으로 체계가 잡혀있어서 위치와  
권한이 우리와는 차이가 있다. 즉, 한국은 비주얼 디  
렉터라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와 같이 코디네이터의 개  
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최근 인식의 전환으로 전문  
직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역  
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어시스턴트의 힘  
든 역할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즉, 패션  
스타일리스트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교과목으로 현  
장실습을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③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발급  
에 대해서는 직업의 특성상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  
만, 교육과정의 변화와 노력은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현장에서 자격증으로 스타일리스트의 능력  
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이며, 다만 처음 이일에 종사  
하는 스타일리스트가 패션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뿐, 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현장에서 디  
테일하고 순발력 있게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평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3.2. 심층면접 결과 : 최혜련, 여성(40대)

소녀시대 스타일리스트를 거쳐 10년 이상의 경력  
이 있는 전문 패션스타일리스트이다. 패션 관련하여  
비전공자이지만, 현장에서의 어시스트에서 출발하여  
고도의 집중력과 성실성을 기반으로 오늘날 국내 패  
션스타일리스트 TOP 10에 속한다.

최혜련의 확장영역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  
음과 같다.

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과 교육과정에 대해  
교육기관의 부실한 교육과정과 이론 집중적인 교육이  
가져온 결과로 현장실무 능력이 저조하고, 패션스타  
일리스트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과목으로 기초  
교육의 하나로 인성교육을 통한 전인적인 교육의 중  
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무역량을 위한 발전방안  
과 활동영역에 대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패션산  
업과 방송분야, 영화, 드라마에 편중된 것으로 보아  
외국의 패션스타일리스트처럼 다양한 산업분야로의  
진출이 절실히 요구되며, 그에 따른 전문적 자질과



능력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 패션스타일리스트의 발전과 역할확대를 위해서는 프리랜서로 일하는 스타일리스트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시스템의 구조화는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직종에 대한 보장을 목표로 함에 따라 미래의 패션스타일리스트들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③ 패션스타일리스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 발급보다는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 확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창의적인 발상을 요하는 직업이므로, 자격증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은 아마도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에 대한 특성 및 인식이 대한 체계가 아직까지 구축되지 않았다는 결과이다.

### 3.3. 심층면접결과 : 김진옥, 남성(40대)

데뷔는 의류회사의 MD를 하던 시절 클론과 박미경의 패션스타일링을 하게 되면서 패션스타일리스트로 입문한 케이스다. 더욱이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션인재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있다.

김진옥의 확장영역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과 교육과정에 대해 모든 시장의 흐름은 경제이며 이것은 곧 마케팅으로 연결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대학에서는 마케팅의 체계적 교육이 실시되지 않음에 따라 역할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패션스타일리스트는 연예인과 대중을 연결해주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인문학관련 분야가 필수 교과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② 패션스타일리스트 전문가로서의 역할 확대는 다양한 분야로의 확장과 발전이 바람직한 현상이며, 패션스타일리스트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개발해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활동영역이 연예인분야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무대, 기업 홍보, 교육현장, 정치인 이미지메이커 등 사회, 정치, 경제 등 산업 전반에 걸친 활동영역으로 확대한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에 진출이 가능하다.

③ 패션스타일리스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 발급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만약 체계적인 관리와 시스템화로 발급된 자격증이 스타일리스트로서의 업무능력을 인증해주는 제도적 장치라면 크게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설학원의 돈벌이와 남보다 좋은 조건으로 선

택되어지고 싶어 하는 수요자들의 스펙 쌓기의 일종인 것 같아 안타깝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전문 에이전시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 3.4. 심층면접결과 : 이경형, 남성(50대)

일본과 미국에서의 교육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업무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 하였으며, 현재는 대학의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교수로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패션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경형의 확장영역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과 교육과정에 대해 의상학과에서 스타일리스트학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수업내용으로 졸업 후 학생들의 현장업무 능력이 다소 미흡하고 전공교수의 부재가 가장 커다란 문제점이며, 전공개설대학은 수도권중심이나 지방에 편중됨에 따라 실무교육의 필요성보다는 입시경쟁에 의한 형식적 교육에 치우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패션스타일리스 양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교과목으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한 모든 패션관련 교과목이 필요하지만 그중에서도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과목이 현장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로의 발전이 필요하다.

②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무역량을 위한 발전방안과 활동영역에 대해, 패션스타일리스의 활동영역이 연예인분야로 편중되어 있으므로, 산업 전반에 걸친 영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운다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전반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다. 국내의 패션스타일리스트를 비교하면, 외국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패션스타일리스트도 독창성과 창의성을 개발하여 다양한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③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발급에 대해서는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면 자격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다만 체계적인 직업군으로 가기위한 도구로 인식되기까지는 전문적인 시스템구축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전문성과 예술성을 습득하기위한 과정으로 이어지기 바란다.

### 3.5. 심층면접결과 : 지경하, 여성(40대)

광고, 잡지 촬영에서 푸드, 리빙, 셋트 소품 등 무대 스타일링을 하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스타일리스트

영역	분야
패션 영역	패션디자인 분야, 의복구성 분야, 색채학 분야, 텍스타일(소재) 분야, 코디네이션 분야
뷰티 영역	뷰티 분야, 헤어·메이크업 분야
역사·문화 영역	드라마·영화 감상, 박물관·미술관 탐방, 상상력 표현, 브랜드 리서치
글로벌교육 영역	외국어 강화교육(영어, 중국어), 패션 트렌드 리서치, 외국 대학과의 프로그램 연계
현장실습 영역	저널리즘 분야(패션잡지, 광고, 사진), 미디어 분야(방송, 영화, 연예, 패션쇼)

[표 4]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현황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도출된 교과목 영역

이다. 또한 대학에서 패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지경하의 확장영역과 발전방안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①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량과 교육과정에 대해 패션스타일리스트관련협업에서 교육하는 교수들은 기본적인 교육과정과 함께 프로젝트를 실제 학생들과 진행하는 등 학생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있지만, 그 횟수가 적으며 더욱이 지방대에서는 이러한 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패션스타일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현장과 이론을 병행하여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졸업 전에 현장실습기간을 의무적으로 교과목으로 설치하여 패션스타일리스트로서의 성실한 자세, 인성교육이 필요하다.

②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실무역량을 위한 발전방안과 활동영역에 대해, 패션스타일리스트란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인식에 대해 과거에 비해 활동영역과 인식의 폭이 넓어졌으나 아직까지는 일부 유명 패션스타일리스트를 제외하고는 전문적인 직업인이라기보다는 단지 셀리브레이터나 인기 연예인들을 위한 조력자의 개념으로 전문가로서의 인정을 많이 못 받고 있으며,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도 보편적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해외시장의 진출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체계적인 준비과정을 통해 진출해야 할 것이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으며, 국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후에 외국으로 진출을 한다면 스타일리스트의 활동영역은 더욱 광범위하게 발전하게 될 것이다.

③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제도적 장치와 자격증발급에 대해서는 스펙 쌓기에는 좋지만 평가하는 내용면에서 실제로 스타일리스트 교육적인 면에서 향상에 도움이 될지는 자격증으로 판가름하기에는 다소 어려

움이 있다.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는 퍼스널 스타일리스트 등의 역할의 확대 및 세분화, 관련 신종 직업 형태로의 확대는 바람직하며,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전문 에이전시나 컨설팅회사에서 많은 관련 사업들을 홍보하고 필요한 인재를 연결해주는 역할과 함께 소비층의 확대로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수립을 해야 한다.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현황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분석한 결과 [표4]와 같이 교과목의 영역을 크게 패션영역, 뷰티영역, 역사·문화영역, 글로벌 교육영역, 현장실습영역의 5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며 다음의 설명과 같다.

첫째, 국내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양성을 위한 교과목 과정을 패션영역, 뷰티영역, 역사·문화 영역, 글로벌 교육영역으로 나누고 패션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세 영역에서 습득한 지식을 현장실습영역으로 나누었다.

둘째, 패션영역에서는 패션디자인분야, 의복구성분야, 색채학분야, 텍스타일(소재), 코디네이션분야로 나누었고, 뷰티 영역에서는 뷰티 분야, 헤어/메이크업분야, 역사·문화 영역에서는 드라마/영화 감상, 박물관/미술관 탐방, 상상력 표현 이미지, 브랜드 리서치, 글로벌 교육 영역에서는 외국어 강화교육, 패션 트렌드 리서치, 외국대학과의 프로그램연계관련 과목을 배치하였다.

셋째, 패션영역을 제외한 세 영역에서의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장실습 영역에서는 저널리즘분야와 미디어분야로 세분화하였다.

#### 4. 결론 및 제언

패션스타일리스트의 교육과정과 교수법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 국내외 교육 방법에 대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였으며, 실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도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인식에 관련해서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식되고 있지만 방송·연예 분야의 역할로만 편중된 점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패션스타일리스트를 교육하는 교육기관이나 이들을 관리하는 에이전시들이 활성화하여 각 분야의 특성과 역할에 맞춘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스타일리스트들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패션스타일리스트는 창의적인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분야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합리적인 작업들이 노력과 역량에 의해 수행된다면 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전반적인 대우와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패션스타일리스트 전공교육에 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내 대학교에서는 전문적인 패션스타일리스트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이론중심적인 교육과정으로 인해 현장실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현재 패션스타일리스트의 교육과정에서 전문적인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문학과가 존재하지 않았던 10여 년 전에 패션스타일리스트업무를 시작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전문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에서의 경험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패션전공 관련 과목에 편중된 교과목을 탈피하여 사회, 정치, 경제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문학 관련분야인 철학, 문학, 문화 등의 교과목을 개설하여 패션스타일리스트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교에서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학교교육과 현장을 하나로 연결시키는 교육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각 분야의 스타일리스트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기계발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인식이 인정이 되면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확대 뿐만 아니라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결론적으로 패션스타일리스트학과의 현황과 실무자들의 의견을 분석하여 패션스타일리스트의 활성화를 위해서 교과목의 영역을 크게 패션영역, 뷰티영역, 역사·문화영역, 글로벌 교육영역, 현장실습영역의 5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패션스타일리스트에 대한 인식과 실무체계가 아직 미흡한 단계이며 설문조사에 있어 주변의 전문직종과의 역할구분이 어려웠으며 많은 수의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심층면접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엄격한 의미의 표출이 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전문 패션스타일리스트 양성을 위한 바람직한 교과과정의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실무전문가들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언을 통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교과과정 모형 개발을 통해 보다 세분화 된 전문교과 과정 설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성권 (1997). 「영화 예술의 미술적 특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아진 (2004). 「Fashion stylist의 역할에 관한 연구」, 덕성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10). 「한국 패션스타일리스트의 역할확대와 Roll Model에 관한 사례분석 - 전문가들의 Roll Model 분석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 (2000). 의상 및 의류학과 개설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 관한조사, 『한국복식학회』, 50(2).
- 김희진 (2004). 「Fashion stylist의 역할에 관한 연구 -TV드라마와 영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효정, 이인자 (2000). 『패션마케팅 & 코디네이션』. 서울 : 시공사.
- 이미량, 이경은 (2004). 2년제 대학 뷰티관련학과 교육과정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뷰티스타일리스트 전공개설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한국패션뷰티학회지』, 2(2).
- 이재정, 박신미 (2011). 『패션, 문화를 말한다』. 서울 : 예경.
- 원용진 (2010). 『새로 쓴 대중문화의 패러다임』. 서울 : 한나래.
- 장애란, 안명숙, 박우미 (2000). 『패션코디네이션』. 서울 : (주)예학사.
- 조인실 (2001). 「국내패션 코디네이션 교육과정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현정 (2003). 미국시트콤에 나타난 라이프스타일과 패션스타일에 관한 연구, 『동덕디자인포럼』, 21(5).
- 최민정 (2006). 「TV홈쇼핑에서의 패션스타일리스트 역할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 패션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양목 (2011). 『대중문화의 이론과 현장』. 서울 : W미디어.
- 한정원 (2006). 「잡지에서의 스타일링 기능과 스타일리스트의 역할 -상류문화지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